

기전여자고등학교

아샘국어



출처: 좋은책 신사고

목차

1. 형태소

2. 높임표현

3. 단어의 형성

본 책은 전주 기전여고 동아리 아이엠 샘에서 만들었습니다. ‘교과서 만들기’라는 활동을 통해 제작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교과내용을 작성하고 점검함으로써 교육계열에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 아이엠 샘의 교과서 만들기를 성공했다!

ㅋㅋㅋㅋ솔직히 오랫동안 만들기도 했고 다들 바빠서 자료도 늦게 받아서 힘들었다. 실력이 뛰어난 정도는 아니지만 모두가 열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교과서 작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노력을 더한 우리 아샘 6.7기가너무 완전 자랑스러워ㅠㅠ 시간을 쪼개서 편집한 나도 정말 수고했고 이제 2019 아샘 7기.8기가 이끌어갈 일만 남았네. 2019도 파이팅하고 우리 아샘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진짜. 애들이 완전 많이 사랑해♥(편집 죽을맛인데 익숙해진다..) 2019.01.23

발행일 2018년 12월 29일

발행인 함지수 정하은 최지우

발행처 기전여고 동아리 아이엠 샘

편집자 남수연

L.
아이엠 샘



형태소

학습 목표

- *형태소의 의미를 알 수 있다.
- *형태소를 의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형태소를 자립성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생각열기



다음 ‘-는’이 언어의 구성단위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생각해보자.

— L ⁵

+ 단어장 저장

관련 어휘

예문펼침 T + -

어미

-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어제 떠난 사람
 - 탈실로 짠 옷
 - 손을 다친 사람 [예문보기](#)
-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
 - 모자를 쓴 여인
 - 눈이 쌓인 도로에서 꿈쩍도 못 하고 있다.
-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군인인 아버지
 - 푸른 하늘
 - 훌륭한신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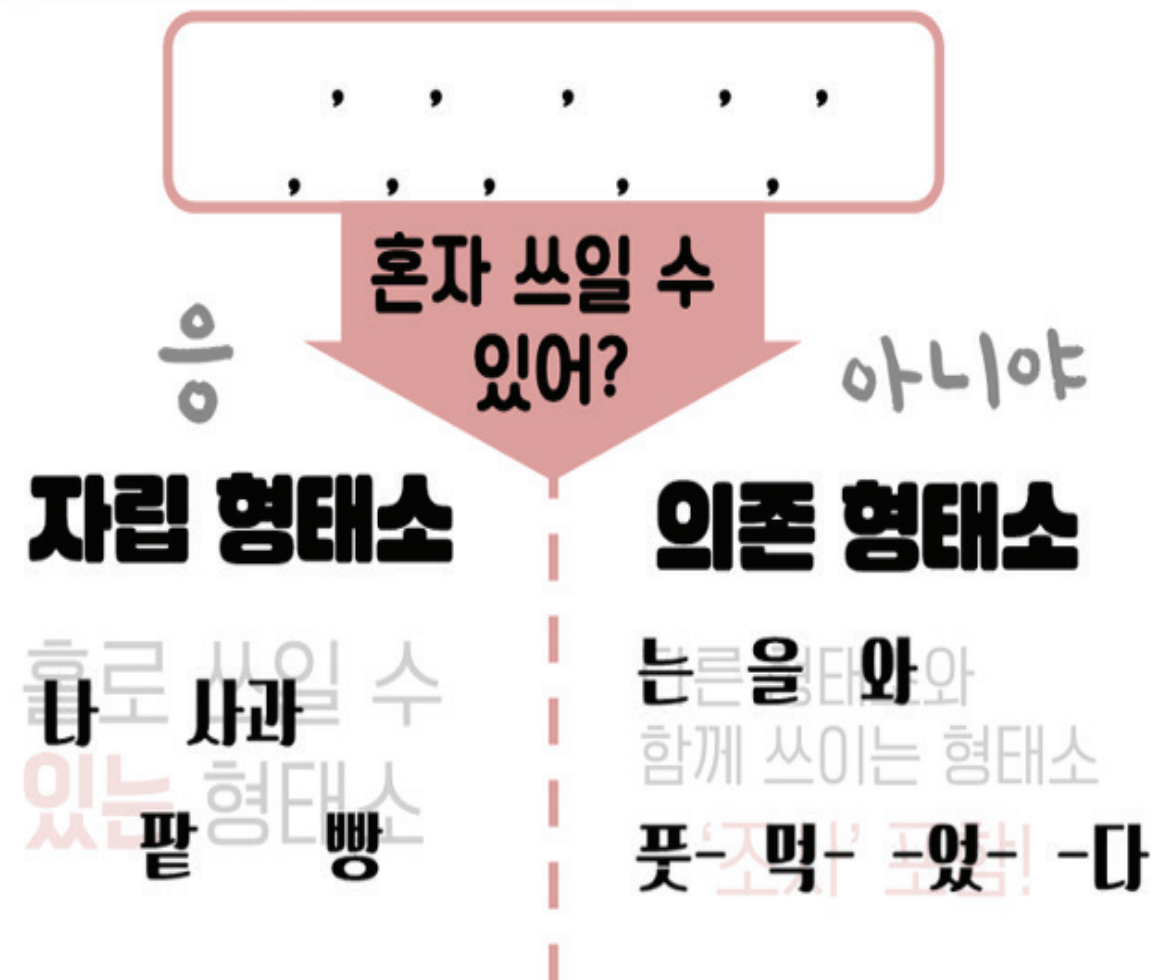
자립성 유무에 따라

형태소를 자립성의 유무로 구분하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 하고, 혼자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의존해서 쓰이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여름은 매우 덥다.’라는 문장에서 ‘우리, 나라, 여름, 매우’ 등은 자립 형태소이고 ‘의, 한-, 은, 덥-, -다’ 등은 의존 형태소이다.

형태소 친구 찾아주기



[2]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이란 말하는 이가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높임법은 높임 표현의 방법이나 체계를 뜻한다. 그 중에서도 주체 높임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체 높임법

서술의 주체(주어가 가리키는 인물)를 높이는 표현 방법이다. 대개 말하는 이보다 서술의 주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상위자일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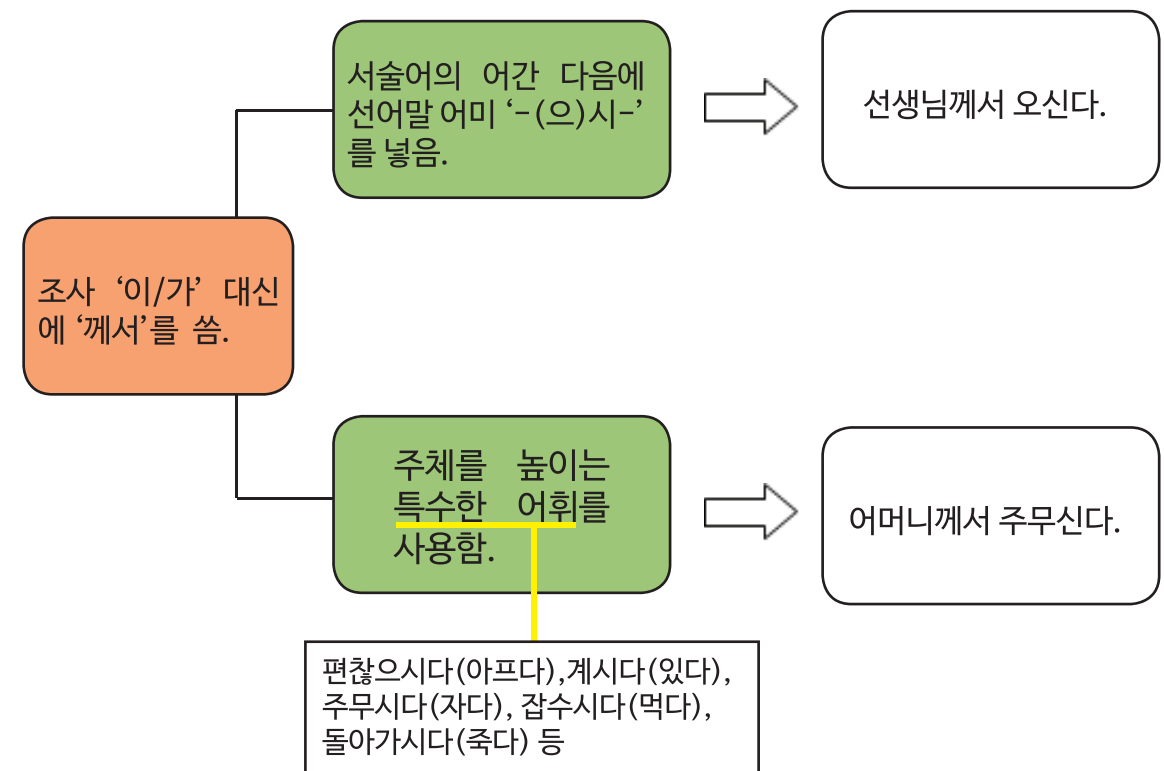
아이가 책을 읽는다.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신다.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는 ‘아이’와 달리 높여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높임의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서 높이고 있음.

주체 높임의 실현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직접 높임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방식 -실현: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임.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 주체 : 할아버지)
간접 높임	-서술의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 -실현: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부분, 개인적 소유물, 관련된 일이나 사물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임.	할머니는 귀(→신체부분)가 어두우셔. 선생님은 넥타이(→개인적 소유물)가 잘 어울리신다.

압존법(壓尊法)

서술의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듣는 이가 주체보다 높을 때에는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이다. 원칙적으로는 ‘-(으)시-’를 쓸 수 없다.

예)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3] 단어의 형성

◎ 형태소란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를 뜻한다. 즉,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의 단위이다.

자립성 / 의미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
자립형태소	A	B
의존형태소	C	D

위 표에서 의미하는 자립성의 뜻은 형태소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의미의 뜻은 형태소가 실질적 (어휘적) 의미를 갖는지 문법적 의미 (기능) 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자립 형태소,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에 붙어서 쓰이는 것은 의존 형태소,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질 형태소, 문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형식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다.

◎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 **실질 형태소**란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실질 형태소에는 용언의 어간,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가 속해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책을 읽었다.’ 라는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를 찾아 분류해 보자.

위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는 ‘철수’ (고유명사), ‘책’ (명사), ‘읽-’ (용언의 어간) 이 있다. 이와 같이 ‘철수’, ‘책’, ‘읽-’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형식 형태소**란 실질적 의미를 갖지 않는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이다.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가 속해있다.

예를 들어, “그 꽃이 매우 예뻐다.”라는 문장에서 형식 형태소를 찾아 분류해 보자.

위 문장에서 형식 형태소는 ‘이’ (조사), ‘-었-’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 이다. ‘이’ (조사) 는 문장에서 꽃을 주체가 되게 하고, ‘-었-’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은 과거를 나타내며, ‘-다’ (어말 어미) 는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형태소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는 키가 매우 크다.”

기준/ 예시	그	는	키	가	매우	크-	-다
자립성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미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실질	형식

대체로 자립 형태소 = 실질 형태소, 의존 형태소 = 형식 형태소이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크-’는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뒤에 ‘-다’와 같은 말이 붙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크-’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이다.



기전여자 고등학교

아샘국어



ISBN 89-942-6440-X